

법조인 선발 ·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

함진규 의원(새누리당)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월 1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법조인 선발 ·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함진규의원실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발제는 국민대학교 이호선 교수가 하였으며, 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이정호 부협회장이 맡았다.

지정토론자로선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부회장, 중앙대학교 황인태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양재규 부협회장, 법무법인 시화 김학웅 변호사, 사법연수원 한석현 자치회장이 참석하였다. 토론회 전체사회는 전하진 의원이 맡고, 사법시험 존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김용남 의원도 참석하여 힘을 실어 주기도 하였다.

함진규 의원은 지난 3월 7일 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삭제하여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되 로스쿨 재학생 · 휴학생 ·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사법시험이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주요 언론에서도 고비용 저효율의 로스쿨제도를 강하게 비판하거나 법조인 선발 · 양성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함진규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 · 환경 · 배경 · 나이 · 조건 등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편, 함진규 의원은 평소 사법시험과 법원 등 사법제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9월 5일(금) “대법원장이 판사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 · 지방변호사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외부 기관 · 단체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